

# 우리의 많은 마음입니다



2019 회원·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탐사(고하도, 2019. 3. 9.)

# ❖ 목포시는 문제의 책임을 시공사에게만 돌리지 말고 시공사와 맺은 협약서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재연기에 따른 목포환경련 입장

지난 4월8일 새천년건설(주)과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5월3일 개통예정이었던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을 10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메인 로프의 풀림현상이 발견되어 부득이 연기한다는 내용이였다. 현재 문제있는 로프를 철거하고 새로운 로프로 교체 시공할 예정이라 발표하였고, 제작, 수송, 시설, 시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올해 10월로 개통을 연기한다고 하였다.

개통 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안전한 시공을 위해 개통을 연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하다. 새천년건설(주)과 목포해상케이블카(주), 그리고 목포시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말끔히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통시기를 정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안전 점검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해야 하고, 시민과 이용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안전 진단과 결과를 통해 안전성에 확신을 주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기공식을 강행하고 해상케이블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시작도가 넘어졌고, 주차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수십년 된 왕벚나무들이 무참하게 잘려나갔으며,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시설물에 대한 위화감을 호소해왔다. 유달산 중턱 '유달산 승강장' 건물은 그 높이나 외관이 주변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거대한 '특혜성' 상업시설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더욱이 이곳 871㎡(대략 263평) 부지를 지난해 10월, 목포시가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게 3천570만원에 매각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목포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케이블카업자에 대한 '특혜'는 이뿐이 아니다. 고하도 해상테크, 고하도 면화단지 조성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의 고하도 개발사업이 이 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목포관광 활성화란 미명 아래 결국 이득은 고스란히 업자의 몫이고, 목포시민에게 돌아올 것은 유달산

훼손과 교통체증 뿐인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무참히 잘려나간 유달산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며 기왕 공사가 시작됐으니 잘 마무리 돼서 목포관광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던 목포시민들의 소박한 소망은,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사건 사고와 잡음, 두 차례 개통연기를 통해 산산히 부서지고 있다. 오히려 ‘기대’는 우려로 바뀌어, 시공사가 케이블카 시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시설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선정되었는지, 안전성을 보장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약속한 10월에는 제때 개통할 수 있을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공사는 목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을 안심시켜왔으나, 교통유발 해소를 위해 수십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들여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건설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목포시는 일련의 계속되는 문제의 책임을 공사업체에만 돌리지 말고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은 물론, 시민들이 갖는 궁금증과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맺은 협약서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케이블카 공사를 계기로 지나친 인공시설물 공사, 사찰 도로 개설 논의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유달산 지키기 시민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목포의 상징이요 마음의 고향인 유달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 4.

### 목포환경운동연합



무너진 임시석도(출처: 목포시민신문)



잘려진 수십년된 벚꽃나무길(출처: 목포시민신문)

# 9년간의 색다른 경험

글 / 양현주 (회원/삼호중공업 복직 노동자)

회사라는 울타리안에서의 생활이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정리되고 낯선 사회의 환경에 내몰려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기업복지라는 보호막이 나를 얼마나 감고 있었는지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고 스스로 무엇이든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것이다.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라는 소득보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이 체제의 민낯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밭 딛고 있는 이 체제는 사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자본을 위한 사회로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사회 초년생으로 무엇을 할지 헤매던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나름 길을 찾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날수 있었고 새로운 길을 만들며 희망을 꿈꾸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후 나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었다.

길위에서 만난 사람들중에는 이주노동자, 하청비정규직노동자, 세월호가족, 노동권과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만남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낄수 있었던 점이 있다. 사회적 차별과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본이라는 악마가 이윤이라는 먹이감을 찾아나서면서 수 많은 사람들을 아파하게 만들고 상처를 준다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거대한 자본이 살핀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이 사회는 정글의 법칙만 통하는 무시무시한 사회체라는 것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잠깐의 외유(?)를 마무리 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안과 밖의 온도 차이는 있을 지언정 이 사회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길을 찾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나에게겐 소득이었으리라.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어떤 길을 찾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물음표를 갖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은 나에게 짐이 아닌 새로운 환경을 이겨내는 바람막이가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와 함께 만남을 가졌던 모든 분들을 건강을 빌어본다.

# 노동과 환경의 만남

글 / 황형수 (회원/삼호중공업 복직 노동자)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직은 따끈따끈한 신입회원 황형수입니다. 저는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조합원입니다. 2010년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되었다가 노동조합 투쟁의 결과로 지난 4월 1일부터 복직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다시 신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업부서로 배치하기 전 필요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느라 교육원 생활 중입니다. 이곳 생활은 1~2개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조선소 노동자로 살아갈진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산업도 노동조합도 과거처럼 미래가 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과 환경의 만남, 한국사회 변화발전을 위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만남을 위해 아주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배회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

다

립

니

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수필, 시, 사설, 축하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2월

- 08일(금) 故 서한태 상임고문 1주기 추모 행사 준비위(1차)
- 09일(토) 회원·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탐사(양 읍산 - 31명)
- 11일(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목포지부 대표자회의 & 정기총회
- 14일(목) 故 서한태 상임고문 1주기 추모 행사 준비위(2차)
- 15일(금) 제116호 소식지 발간
- 19일(화) 전남·광주 사무국처장 회의(광주)
- 20일(수) 5.18민중항쟁 왜곡 망언에 대한 목포시민사국선언(목포역 광장)
- 22일(금) 목포지역 시민단체 간담회(환경운동연합 2층)  
5.18민중항쟁 역사 왜곡 처벌 전남시국회의(전남중소기업진흥원)
- 23일(토) 2019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대전 서구청 강당)
- 25일(월) 민선7기 정책실현을 위한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센터)
- 27일(수)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위 회의(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28일(목)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부근 빛나무 벌목 관련 목포시 담당자 항의 면담

· 시민 회원과 함께하는 생태탐사(양읍산)



· 2019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위 회의



· 5.18민중항쟁 역사 왜곡 처벌 전남시국회의



3월

- 02일(토) 목요대화마당 운영위원회
- 04일(월) 5월 사업 실무단 회의(YMCA) / 세월호 집행위 회의 (YMCA)
- 07일(목) 세월호 집행위 회의(나무숲)
- 08일(금) 환경교육 센터장 면담과 전남사무국처장단 회의(여수)
- 09일(토) 회원·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탐사 (고하도-43명)
- 10일(일)故서한태 상임고문 1주기 묘소 참배(무안군 몽탄면)
- 12일(화) 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 간담회(YMCA) / 615실천남측본부 목포지회 집행위원회
- 13일(수) 환경운동가故 서한태 박사 1주기 추모의 밤(오거리문화센터)
- 14일(목) 전국 사무국처장단 회의(대전/14시)
- 15일(금) 세월호 대표자 회의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19일(화) 5·6월 사업진행 관련 회의(YMCA) 서창호 교수 송별연(소담)
- 21일(목) 빈용기보증금 실태조사 지역단체 실무자 교육(용산역 ITX 특실(용산역 4층)
- 22일(금) 민선7기 정책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생협) / 미세먼지 공익광고 웹자보발송(697통)
- 24일(토) 세월호 부스 지킴이
- 25일(월)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집행위, 기획단 회의(청소년노동인권센터)
- 26일(화) 전남탈핵전략회의(광주 환경운동연합), 5.6월 사업 관련 실무자회의(YMCA)
- 29일(금) 강하천살리기 지원사원 심사(순천 자연 생태관)
- 30일(토) 장례식장 1회용품 관련 TF팀 모임
- 31일(일) 달리도 생태탐사 사전 답사

· 고하도 생태탐사 & 정화 활동



·故 서한태 상임고문 1주기 참배



· 세월호 부스 지킴이



· 환경운동가故 서한태 박사 1주기 추모의 밤

# 4월

- 01일(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목포지부 대표자 회의(YMCA)
- 03일(수) ESD 교육지도자 연수 (전남환경교육센터)
- 04일(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임시총회 (전교조 전남지부)
- 05일(금) 광주전남임원활동가 수련회-전남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06일)(구례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 08일(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진도 하조도, 해남 목동리)  
목포시의회 의장 면담(대양산단 지방채 800억 승인 관련)
- 09일(화) 전남도교육감 면담(16시 전남도교육청) - 전남환경운동연합 MOU 추진사업 이행 현황 논의
- 10일(수) 2019년도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 11일(목) 회원확대특별위원회(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성명서]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재 연기에 따른 목포환경연의 입장
- 12일(금) 세월호 5주기 추모 추모음악회 연대활동(자원봉사단, 13일 행사 사전 준비)
- 13일(토) 회원·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탐사(달리도- 47명)
- 15일(월) 장례식장 1회용품 관련 TF팀 모임
- 16일(화) 615실천회의 집행위원회(OZ), 라돈간이측정기 대여 사업 시작
- 17일(수) 새꿈도시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 19일(금) 제214차 집행위원회 & 워크숍(~20일)
- 20일(토) 청소년환경서포터즈 2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23일(화) 환경의 날 기념 준비모임(녹색목포21)
- 26일(금) MBC일요포커스 최송춘 의장 출연(도시공원 개발 논란, 쟁점)
- 27일(토) 박승희열사 추모제 & 평화의 인간띠잇기
- 29일(월) 장례식장 1회용품 관련 TF팀 모임
- 30일(화)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민대회 연대 참여

· 달리도 생태탐사



· 광주전남임원활동가 수련회



· MBC일요포커스(도시공원 개발 논란)



· 석탄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민대회



2월

(유)서남환경/(유)인동기업/(유)일우산업/(주)보해양조/(주)세일산업/(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희/우진건설/특허사무소 다임  
 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박미옥(박주익)/장동춘(박민아)/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영규/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  
 강혜정/고영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곡순천/권기별/권수한/김가영/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  
 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목/김병주  
 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훈/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영/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옥/김완석  
 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웅기/김원이/김윤임/김은미/김일용/김재영/김재욱/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탁/김태근  
 김태수/김태웅/김해성/김행연/김현곤/김현숙1/김현숙2/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  
 류미현/류은경/마홍식/모원종/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  
 박미덕/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박성희/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  
 박종선/박종석/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박최규/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배동희  
 배서영/배영식/백동진/백재봉/변재연/봉현구/서병권/서석철/서연순/서정/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복례/손문선/손봉현/손철주/손현  
 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양태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수/양현주/양희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  
 오미선/오숙향/오영출/오왕근/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  
 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우  
 이승한/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남/이정식/이종훈/이준희/이지우/이지현/이창현/이창환/이태환  
 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화덕/임성진/임은아/임진욱/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  
 전경남/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울/정규정/정기심/정동욱/정성우/정수민/정순용1/정순용2/정승원/정연우/정연우  
 정연희/정영호/정인숙/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정효준/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성은/조애련/조애순/조영민/조옥현  
 조완오/조원기/조은일/조혜향/조호빈/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대순/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성국/최승국/최승주/최승춘  
 최승희/최영섭/최영은/최예화/최완수/최은기/최은영/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녕/최화석/하영성/한봉철  
 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욱/황민수/황형수/황혜미

목포환경운동연합 2월 결산보고

수 입		금 액
항 목		
회 비	개인회비	4,655,000
	단체회비	585,000
소 계		5,240,000
행사수입		320,000
후원금		400,000
기타수익		750,279
이자수익		

[후원금]

- 후원회원 150,000
- 디자인공장 250,000

[행사수익]

- 1차 생태탐사 참가비 320,000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300,000
- 퇴직금적립통장 이체 350,279

당월수입금	6,710,279
전월이월금	4,799,983
합 계	11,510,262

지 출		금 액
항 목		
사 업 비	교육사업	54,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55,000
	행 사 비	361,000
	연대사업	390,030
	역량강화	1,260,000
소 계		2,120,030
회 의 비	총 회 비	230,000
	위원회비	183,000
소 계		413,000
인 건 비	급 여	3,522,500
	복리후생비	707,140
	퇴직적립금	313,333
소 계		4,542,973
업무추진비	출 장 비	251,740
	활 동 비	70,000
소 계		321,74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399,180
	소모품비	0
소 계		917,180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6,470
지급 수수료		89,880
당월지출금		8,511,273
통장 잔액		2,998,989
합 계		11,510,262

### 3월

(유)서남환경/(유)인동기업/(유)일우산업/(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협/우진건설/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감(장미선)/박미옥(박주익)/장동춘(박민아)/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영규/강제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곡순천/권기별/권수한/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욱/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영/김시연/김애자/김재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욱/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현/김윤임/김은미/김인순/김일용/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해성/김행연/김현곤/김현숙1/김현숙2/김현정/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규/남명숙/남주연/노애란/류미현/류은경/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서/박경양/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영/박성원/박성현/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원석/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박희근/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희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배영식/백동진/백재봉/변재영/봉형구/서병권/서연순/서정/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손봉현/손철주/손현/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안혜영/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수/양현우/양호식/염미순/염승주/오경성/오미선/오숙향/오영철/오왕근/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복섭/이상엽/이성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환/이승환/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민/이재현/이정남/이정식/이종훈/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학숙/이현숙/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화덕/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진옥/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보윤/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남/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범/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윤/정귀정/정기심/정동욱/정성수/정수민/정순용1/정순용2/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호/정인숙/정중삼/정지범/정창근/정현찬/정효준/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성은/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욱현/조완우/조원기/조은일/조혜향/조호민/진지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대순/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선국/최성국/최승주/최승춘/최승희/최영섭/최영운/최애화/최완수/최은기/최은영/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영/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숙/허인숙/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용/황민수/황형수/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3월 결산보고

수 입		금 액
항 목		
회비	개인회비	5,530,000
	단체회비	535,000
	2월3차	860,000
소 계		6,065,000
행사수입		430,000
후원금		150,000
기타수익		330,000
이자수익		80

#### [후원금]

- 후원회원 150,000

#### [행사수익]

- 2차 생태탐사 참가비 330,000
- 유비एको(광고비) 50,000
-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0,000

####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300,000
- 카드사용포인트 30,000

당월수입금	7,835,080
전월이월금	2,998,989
합 계	10,834,069

지 출		금 액
항 목		
사업비	교육사업	54,000
	조사연구	0
	홍보비	739,200
	행사비	2,340,200
	연대사업	482,010
	역량강화	
소 계		3,615,410
회의비	총회비	0
	위원회비	196,500
소 계		196,500
인건비	급여	3,560,650
	복리후생비	773,740
	퇴직적립금	315,000
소 계		4,649,390
업무추진비	출장비	241,500
	활동비	110,000
소 계		351,5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294,510
	소모품비	55,980
소 계		368,49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0
	보험료	100,000
	지급수수료	116,700
소 계		316,700
당월지출금		9,497,990
통장 잔액		1,336,079
합 계		10,834,069

4월

(유)서남환경/(유)인동기업/(유)일우산업/(주)달빛언덕/(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희/우진건설/특허사무소 다임  
 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박미옥(박주익)/장동춘(박민아)/제갈경희/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영규/강제석/강종량  
 강창원/강철수/강해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신영/곽재구/국순천/권가별/권수한/김가영/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  
 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욱  
 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룡/김성희/김수린/김수자/김순영/김시연/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욱  
 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현/김윤임/김은미/김인순/김일용/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진형/김진희/김창식  
 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해성/김행연/김현근/김현숙1/김현숙2/김현정/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영/김환석  
 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규/남명숙/남주연/노애란/류미현/류은경/마홍식/모원종/무관/문경진/ 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박기수/박경서/박경양  
 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현/박성희/박수현/박순미/박영운  
 박용일/박용호/박원석/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  
 박최균/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희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배영식/백동진/백재봉/변재영/봉형구/서병권/서석철/서연순/서정  
 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복례/손봉현/손철주/손현/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심우엽/안혜영/양덕수  
 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호식/염미순/염수주/오경성/오미선/오숙향/오영철/오왕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  
 유대홍/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  
 이경택/이광범/이기식/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환/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  
 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남/이정식/이종환/이종훈/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학승/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  
 이화덕/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진욱/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남/전경란/전상보/성열  
 전용원/전준수/전현숙/정가배/정고운/정권울/정규정/정기삼/정동욱/정성우/정수민/정순용1/정순용2/정순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호/정인숙  
 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정효준/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원오/조원기/조은일/조혜향/진선우  
 진지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대순/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선국/최성국/최승주/최승춘/최승희/최영섭/최영문/최예화  
 최완수/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녕/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  
 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욱/황민수/황형수/황혜미

목포환경운동연합 4월 결산보고

수 입		금 액
항 목		
회비	개인회비	5,625,000
	단체회비	550,000
소 계		6,175,000
행사수입		1,000,000
후원금		150,000
기타수익		921,370
이자수익		80

[후원금]

- 후원회원 150,000

[행사수익]

- 3차 생태탐사 참가비460,000
- 최영섭(광고비) 500,000
- 전남환경연 식대지원 40,000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290,000
- 국고환급금 25,770
- 우수지역상금 500,000
- 자원순환교류 105,600

당월수입금	8,246,370
전월이월금	1,336,079
합 계	9,582,449

지 출		금 액
항 목		
사업비	교육사업	76,300
	조사연구	0
	홍보비	0
	행사비	1,437,400
	연대사업 역량강화	647,270
소 계		2,160,970
회의비	총회비	0
	위원회비	73,000
소 계		73,000
인건비	급여	3,560,650
	복리후생비	744,920
	퇴직적립금	315,000
소 계		4,620,570
업무추진비	출장비	55,800
	활동비	0
소 계		55,8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1,115,04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소모품비	159,840 59,900
소 계		1,352,78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12,940
	보험료	100,000
	지급수수료	100,860
소 계		313,800
당월지출금		8,576,920
통장잔액		1,005,529
합 계		9,582,449



## 파란하늘 빨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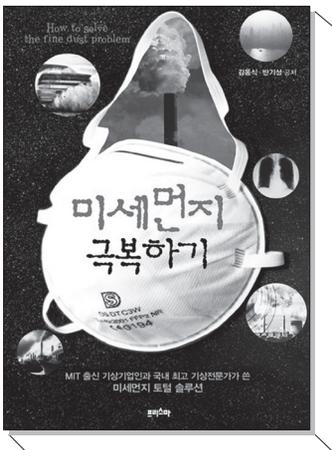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동아시아 | 2019

우리를 위협하는 기상 이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기후변화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생태 문제로 인식한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곳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CIA 출신들이 중심이 된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2007년에 「결과의 시대」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주와 이민이 대거 증가하면서 인종과 종교, 식량 갈등이 새롭게 조성될 것이라 예상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환경 파괴나 재난은 지역적인 성격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일어나는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010년 러시아에는 가뭄이 찾아왔고, 러시아 정부는 밀 생산량 부족을 우려해 수출을 제한했다. 그러자 밀 가격이 치솟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회 시스템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아직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우리도 거대한 흐름에서 안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미세먼지 극복하기

김동식·반기성 | 플래닛미디어 | 2017

MIT 출신 기상기업인과 국내 최고 기상전문가가 쓴 미세먼지 토털 솔루션. '조용한 살인자' 미세먼지의 정체부터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 실외 공기 오염보다 더 심각한 실내 공기 오염의 실태, 미세먼지 극복 사례, 지구공학을 이용한 기발한 미세먼지 제거 아이디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위한 제언까지 미세먼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 제6장에서는 지구공학을 이용한 기발한 미세먼지 제거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아울러 중국에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요구,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사용 감축, 석탄 연료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촉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요구, 현재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 미세먼지 업무 3원화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과 융통성 있는 다양한 방식 동원 촉구, 공격적인 친환경차 정책 시행 요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녹색 공간 확대 제시 등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위한 제언을 실었다.

## 세상에 이런일이! 코알라가 물을 마신다고?

나무에 달라붙어 항상 졸고 있는 코알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데요. 코알라는 잠을 많이 자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코알라가 최근 물을 마시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까요?

코알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스코트 중 하나예요. 코알라는 오래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서식해왔는데요. 사실 '코알라'라는 이름 자체에는 물과 얽힌 뜻이 담겨있어요. 코알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말로 '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코알라가 물을 얼마나 먹지 않길래 원주민들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코알라가 물을 먹지 않는 주요 원인은 바로 유칼립투스 잎이에요. 코알라는 보통 하루에 유칼립투스 잎을 600~800g 섭취하는데요, 유칼립투스 잎 속에 있는 수분(47%)과 잎에 맺힌 이슬을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아요. 사실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이 있어요. 그럼에도 코알라는 간에서 독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알라가 잠이 많은 이유도 유칼립투스 잎에 잠이 오는 성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름에서도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코알라에게 최근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호주에서 한 여성이 갈증을 느끼는 코알라에게 물을 건네는 동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되었어요. 또한 목말라하던 코알라가 소방관이 준 물병으로 목을 축이는 모습도 인터넷에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 '코알라'라는 이름까지 얻은 이 동물이 왜 갈증을 느끼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호주는 최근 시작된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온 나라가 시달리고 있어요. 남호주 주의 경우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고 섭씨 16도나 더 높다고 해요. 호주 기상청에 따르면 호주의 수많은 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하루가 멀다하고 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뭄과 대형 산불은 코알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가뭄과 대형 산불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코알라들의 은신처를 없애고 물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요. 또한 온실가스는 유칼립투스의 영양소를 파괴하는데요. 이는 유칼립투스 잎만 먹는 코알라의 영양실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답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원인들로 인해 물을 마시지 않는 코알라는 물을 구하게 되었어요.

2,500만년 전부터 호주에서 서식해온 코알라는 이처럼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실제로 호주 야생에 남아 있는 코알라 개체 수는 4만 3,000여 마리인데요. 사실 18세기 말부터 유럽인들이 호주에 정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1,000만 마리 이상의 코알라가 서식했었다고 해요. 즉 2세기 만에 코알라 개체 수가 99% 이상 급감한 것이죠. 빠른 속도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코알라! 위험에 처한 코알라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코알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 실천으로 코알라를 지켜주세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사용해 보세요!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고 쓰지 않는 전원을 꺼놓는 것도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SNS 등을 통해 현재 코알라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코알라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5월 22일**

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은 원래 1994년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 회의에서 협약 발효일이었던 1993년 12월 29일을 기념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UN은 2000년 12월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발표일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변경해 2001년부터는 5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는 것 외에도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는 각국이 이 날을 맞아 기념행사 등을 치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환경·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기후변화협약·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UN 3대 환경협약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바다의 날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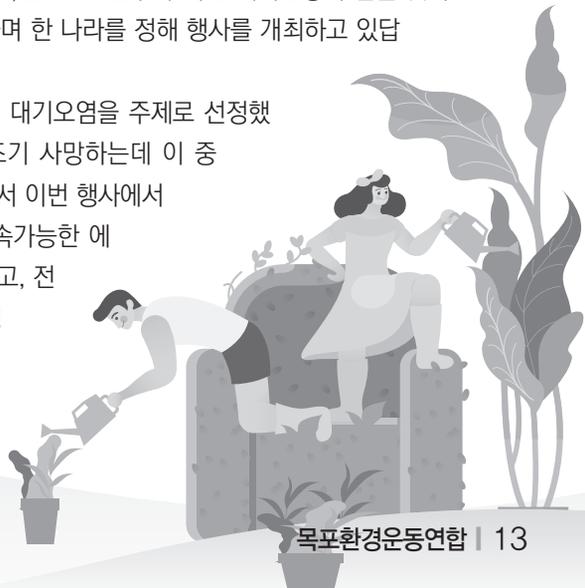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서, 해양 자유 이용 시대에서 해양 분할 경쟁시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다를 둘러싸고 국제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넓은 바다면적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경제적 요충지에 위치한 해양국가 이다보니, 바다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생각하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바다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 이예요.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는 날 인데요.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날짜가 지정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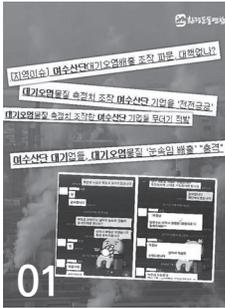
**세계환경의 날  
6월 5일**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시 제정, 그해 UN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중국을 주최국으로 선정하고 대기오염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약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데 이 중 400만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및 개인 모두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 세계 도시와 지역의 대기질 향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광주·전남 지역의 235개 사업장에서 무려 4년간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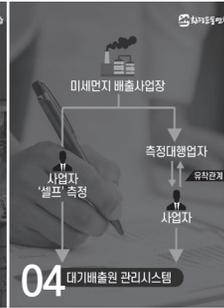
01  
광주·전남 지역의 235개 사업장에서 무려 4년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02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할수록 배출부과금을 많이 내게 되어있는데, 부과금을 많이 내기 싫은 기업이 배출량을 축소 산출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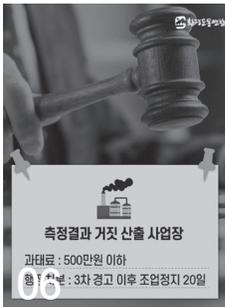
03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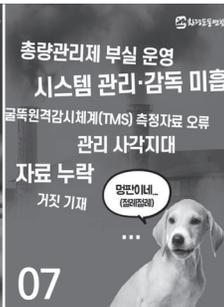
04  
첫째, 허술한 '셀프측정'시스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부분의 사업장이 셀프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맡겨 기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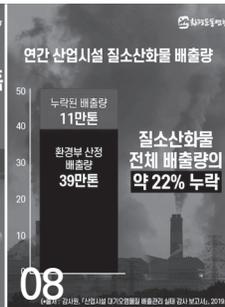
05  
이런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관리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둘의 감시가 소홀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06  
둘째, '기업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불법을 저질러도 사업장에서 내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 수준이고 행정처분도 가벼워 적발되어도 사업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07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08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무려 11만여 톤이 산정에서 제외되어 전체 배출량 추정치의 약 22%가 누락되었습니다.



09  
산업시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사업장 전수조사, 배출조작 기업 처벌 강화등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10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회원과 시민 여러분 가정의 불안요소인 라돈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대여 방식

- 1 접수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오전9시~오후6시)
- 2 기간은 1박 2일(24시간) 입니다.
- 3 보증금은 무료이며, 환경관련 광고를 위해 1회 1천원의 대여비용이 있습니다 .
- 4 대여시 파손 방지와 책임에 관한 서명이 있습니다.
- 5 대여와 반납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 해주셔야 합니다.

대여 문의

010-8243-3169

2019년 2월~ 2019년 5월 10일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 최승춘 추천 : 김옥미, 임지현, 이명숙, 이현인, 최규광, 최석원, 양 환 임경숙 추천 : 진지연, 박성욱
- 이현승 추천 : 이용자, 정영호, 김환석, 김판삼, 이종환 이현진 추천 : 김현정, 안혜영, 김철주, 박준길, 정재근, 김영진
- 박성원 추천 : 박원석, 박성영, 오승원 양현주 추천 : 이학승, 유영창 조상현 추천 : 김인순, 유영순
- 민경광 추천 : 황순진 김성길 추천 : 오재록 양현주 추천 : 이학승, 유영창 조원기 추천 : 전형숙
- 윤성광 추천 : 심우엽 조애순 추천 : 달빛언덕 최완수 추천 : 김상훈 최승희 추천 : 박민창 박종선 추천 : 박경서, 박금단



“ 못된 사람은 歷史가 審判하고 우리의 바보짓은 自然이 審判한다 ”

故 서한태 박사님 말씀 중에서

최영섭 회원

**미세먼지를 줄입시다**

**아** 꺼쓰고  
미세먼지 배출하는 석탄발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아껴쓰고

**나** 도 만들고  
미니 태양광으로 나도 직접 전기를 만들어봐요!

**바** 꺾타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 그만타고 대중교통, 자전거를 더 많이 타요!

**다** 시쓰자  
소각되어 미세먼지 만드는 생활쓰레기, 일회용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로 생활해봐요!

소모임 <들풀>

회원·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지역 생태탐사**

02월 양왕산	03월 고하도
04월 달리도	05월 518사적지
06월 암태도	07월 옥녀봉
08월 삼향천	09월 입암산
10월 유달산	11월 삼학도
12월 원도심	

매월 2번째 토요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모임 <녹색연구회>

편집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공방/디자인그라디 (061) 287-0146, 010-3888-0145

**유니네농장**  
UNIEGGFARM

행복한 닭이 낳은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정란!

전국 가정에 우체국택배발송

문의 010-8756-3055

박찬우 회원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플라스틱 빨대 NO!!

손현 회원

**포마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FOUR MARINE SINCE 1994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